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8월 1일
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3 호

“회향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해탈을 위한 것”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3년 만에 호국안민대법회 봉행

전국 사원은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고 7월 16일 호국안민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부산경남교구(좌), 서울경인교구(우)

총기 51년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며, 총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사원에서 일제히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일반적으로 백중을 음력으로 지내는 것과 달리 종단은 양력 7월 15일을 해탈절로 삼아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진호국가불공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백미 공양을 올리며 선망부모 조상영식 해탈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불공을 올린다.

종령 법공 예하는 해탈절 법어를 통해 “방생은 공생과 상생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자비행이며 진정한 방생은 자신을 방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설파하고, “해탈절 회향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해탈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향을 마친 전국 사원에서는 다음날인 16일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호국안민대법회를 3년 만에 열었다. 서울경인교구와 부산경남교구는 교구 차원의 법회를 봉행했으며, 대구경북과 충청전라 교구는 각 사원별로 여법하게 진행했다.

서울경인교구(교구장:록경 정사)는 스승과 교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태안 흥익대학교 만리포해양연수원에서 개최했다. 1부 대법회는 종단의 전통 의궤로 나라를 위한 호국일념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연, 무연중생의 영식천도를 발원했다. 2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도들의 신심을 달래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

봉행사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하반기 불공은 부모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실천 수행하는 불공이다.”고 설명하고, “수행과 불공기도를 즐겁게 하는 진언행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지혜와 가지력을 내려 달라.”고 서원했다.

부산경남교구(교구장:법일 정사)도 전라북도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사부대중 350여 명이 참석하여 대법회를 봉행하고, 전라북도 기념물 제35호인 마이산 탑사를 관불했다.

〈관련 화보 2면〉

총지종 감수위원회 제3기 발족

경전·불사법요 등 종지에 맞도록 감수

종단 출판물 감수위원회 제3기 위원의 선발이 마무리 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지난달 묘원화 전수(벽룡사), 혜원정 전수(실보사), 지현 전수(자석사), 정원 전수(수인사), 남혜 정사(단음사), 혜광 정사(시법사) 등 6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은 감수위원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감수위원회는 경전과 불사법요, 위드다르마, 총지종보 등을 비롯한 종단이 발행하는 모든 인쇄물이 종지와 교상에 맞게 발간되도록 그 내용의 감수를 맡고 있다.

묘원화 전수

혜원정 전수

지현 전수

정원 전수

남혜 정사

혜광 정사

‘불공 잘해라’ 독후감 우수작 3편 선정

공재호, 나종훈, 황보정미 수상의 영예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작 3편이 선정됐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이 주최하고 도서출판 운주사가 후원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출된 독후감 중 총 3편을 공동 우수작으로 가려 뽑았다.

시상식은 창종 50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우수작 3편은 이달부터 본지에 한편 씩 소개 된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재호(수인사 교도) △나종훈(일반부) △황보정미(총지사 교도)

‘불공 잘해라’는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 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은 현재 전국 총지종 사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불교총지종 사무직 채용 알림

불교총지종과 함께 할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공통자격요건
- 학력: 고졸 이상

지원자격
- 경력: 무관(신입도 지원 가능)
- 기타필수사항 : 1종 보통운전면허, 운전가능자
- 우대사항: 문서작성 우수자

근무조건
- 근무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근무일시: 주 5일(월~금) 09:00 ~ 17:30
- 근무지역: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2호선

문의: 02)552-1080

종/조/법/어

어렵고 큰 착한 일을 하나 하는 그것보다,
작은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습관이 되면 크게 착한 것이 된다

지면안내

2면 호국안민대법회 화보
4,5면 여름특집/총지 사원과 함께 휴가 나기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12>

효강 대종사 49재 봉행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1년 8월 18일(목) 오후 1시
장소 _ 서울 본산 총지사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종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화보

‘방생(放生)’은 곧 ‘공생(共生)’이며 ‘상생(相生)’

1

2

3

❶ 서울경인교구
❷ 부산경남교구
❸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의 장을 만드는 서을경인교구 사부대중
❹ 섹소폰 연주자로 나선 총지사 최해선 교도
❺ 발원문을 낭독 중인 서울경인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❻ 법회에서 음성공양 중인 부산 만다라 합창단

4

5

6

‘불공 잘해라’ 독후감 우수작 ①

총지교도 10여년, 나를 돌아보다

수인사 공재호

부처님은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 나셔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고 고행에 들어 크게 깨달아 부처가 된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경남 밀양 죽서마을에서 소위 부유하고 뼈대 있고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친 손기현 님은 가족 모두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 당시 대성사님 나이 6세.

평생 양반으로, 대대로 벼슬에 나섰던 무반의 자손으로 명망과 부귀를 누렸던 대성사님의 부모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어린 자식까지 메마른 만주 바람을 맞으며 노동을 해야 할 만큼 거칠고 힘겨웠다. 그 망명길의 고초와 간도땅에서 생존을 위해 숱한 고난을 겪은 대성사는 이 또한 부처님과 같은 고행이라 여겼을 터.

대성사님은 ‘세상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지혜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풀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셨다. 결국 불교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와 불평등의 모순이 사라지는 새로운 길과 만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살아가는데 꼭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요즘 세상은 내가 모두 맞고 너는 모두 아니다, 소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내편, 네 편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남녀를 갈라 젠더갈등, 색깔론 갈라치기, 정규직 비정규직, 임차인 임대인, 지역 갈등 등 자신들의 모순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 서로 물고 뜯고 있다. 조금의 양보도 배려도 없다.

가르침은 지나친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되고, 지나친 계율이나 고행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진리가 계율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삶속에서 나타나는 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팔정도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불교를 바로 알게 되면 일체만법이 불법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진리를 융화해서 통합시킨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또한 용맹정진의 기도로 서원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성사님은 후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이와 같이 법문을 남겼다.

“자식 잘 되기를 서원하거나 생산하기를 서원하는 정기 불공 중에는 특히 계행을 지켜야 서원을 성취한다. 만약 계행을 범하면 불공 중에 마장만 일어나고 공덕이 없기 때문이다.”

“정진 중에는 만족을 알고 달리 바라는 바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에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말아 늘 참고 편안하게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인과를 깊이 믿어야 한다.”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대성사님은 정통 밀교의 본산인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다. ‘즉신성불’, ‘불교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불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신다. 밀교를 대표하는 불교총지종은 올바른 밀교 수행법과 각종 의궤를 정립하고 정통밀교종단을 혼란스러운 이 땅에 확립하고 구현한다.

대성사께서는 사종수행법으로 식재(息災,재난을 소멸하는 법), 증익(增益,소원을 성취하는 법), 경애(敬愛,존경과 사랑을 받고 화합하는 법), 항복(降伏,일체의 삿된 마장을 조복 시키는 법), 재난을 없애기를 서원 할 때는 ‘제재난사바하’,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서원 할 때는 ‘소구여의사바하’, 화합과 원만을 서원할 때는 ‘영일체인경애사바하’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하셨다.

일체 중생은 이 수행법과 의궤를 본 바탕으로 용맹스럽게 정진을 하고 불공을 하면 즉신성불 즉, 성도를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도 입종 한지 어언 10여년이건만 나는 불공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생각에 잠겨본다.

대성사의 마지막 한마디 “불공 잘해라” 이 말씀이 뇌리를 스치고 귓전에 맴돈다.

관음종, 제9세 종정에 홍파 대종사

새 총무원장에 법명 스님 취임식도

대한불교관음종 제9세 종정에 영산 홍파 대종사가 추대됐다. 홍파 대종사는 1989년 관음종 총무원장 겸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날까지 33년간 종단 발전을 이끌어왔다. 2010년 제7~8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 입적 이후 12년 만이다.

관음종은 지난달 14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제9세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 추대법회 및 제11대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취임식을 함께 봉행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종단협 임원진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 정각회 회장, 최재형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내외·귀빈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수락 법어에서 홍파 대종사는 "시절 인연이 부득하여 오늘 법좌에 오르게 되었다"라며, "천태 지의 스님, 고려 제관 스님, 왕자 의천 스님, 경운 원기 스님, 그리고 은·법사 태허 조사님 반드시 미묘한 법을 펴겠으니 염려치 마옵소서." 라고 설파했다.

이날 함께 제11대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법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관음종뿐 아니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끝없는 정진으로 종단과 불교 중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홍파 대종사는 1961년 청담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및 낙산 묘각사에서 태허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을 역임, 불교운동의 지평을 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내며 해외 선양에 앞장서 왔다.

총지종복지재단 산하 기관 격려

통리원 집행부, 강남 세곡키움 방문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제19대 집행부가 지난달 20일 불교총지종복지재단 산하 기관 강남 세곡키움센터(원장: 김민주)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운영 상황을 파악했다.

내마음의 등불

단향사 지홍 전수

어려움 가운데서 수학(修學)한다

바른 법은 듣기 어렵고, 좋은 스승은 만나기 어려우며,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육근(六根)이 구족되기 어려우며, 바른 소견은 내기 어렵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만나고 모이기를 같이하기 어렵고, 자재함을 만나기 어려우며, 태평함을 만나기 어렵다. 〈불교총전 P283『대살차니건자소설경, 大薩遮尼乾子所說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단향사 지홍 전수님은 정원심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와 훈민정음

지혜의 눈

훈민정음,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의 결과물
불교의 영향은 15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19세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事實)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역사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20세기에는 역사가의 사관(史觀)에 의해 해석된 역사라는, 역사가의 주관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변해왔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역사적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고 따라서 역사해석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역사이해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용인하였고 역사이해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15세기는 조선이 건국되어 국가의 체제를 세우고 정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와는 단절되고 주로 정치적 사건에 의해 왕권이 안정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매우 독창적이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뤘다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다루면 매우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조선왕조가 이룬 성취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저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그리고 '훈민정음'을 꼽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때 새 왕조의 건국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민간에서 진상한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돌에 새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구려가 이러한 독자적인 천문도를 제작할 정도로 국가 체제가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회의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천문도를 모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3년 일본의 나라에서 기토라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그 무덤의 천장에 천문도가 그려져있음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천문도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북위 39도에서 40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기원후 1세기경에 보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새긴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를 연구한 결과 평양 근처에서 바라본 별자리를 새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식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에 반영된 것이죠. 천상열차분야지도 이후 세종 때는 한양을 기준시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칠정산내외편'입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조선 태종 때 제작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지도에는 아프리카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해가 1492년이니까 태종 때의 이 지도는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를 모두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데 다름 아닌 당시의 건국주체세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원나라 때 제작된 세계지도인 '성교광피도'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이지만 조선의 영토를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는 점은 자주적 의식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15세기의 조선 전기의 문화는 특히 과학기술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중국과 다르다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의 정점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은 같은 표음문자인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자에 익숙한 당시의 불교승려가 훈민정음 제작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웠지만 15세기에는 여전히 고려시대의 분위기가 강했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성취는 고려의 유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점은 성리학이 주류로 자리잡은 16세기 이후에는 15세기처럼 과학기술의 업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성리학에 비해 과학과 상대적으로 친밀한 불교의 영향이 15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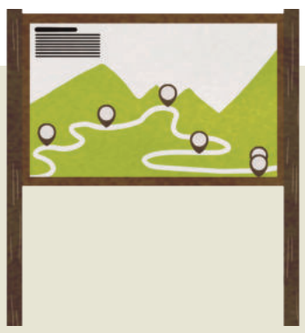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教)와 밀교(密教),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教)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서울에서 부산까지…총지사원 찍고 여름휴가 떠나볼까



더위가 무르익는 8월의 여름, 저마다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휴가의 설렘도 잠시,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여름방학은 필요한 법!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 지역교구별 총지사원을 중심으로 따로 또 같이 건강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도심 속 '마음챙김' – 서울 총지사

2022 서울릴랙스위크 명상컨퍼런스

'군중 속의 고독' 이란 말이 있다. 대중 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사회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기 바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몸서리친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오롯이 혼자만의 휴식을 갖도록 마련된 멘탈 힐링 축제가 있다. 바로 '2022 서울릴랙스위크 명상컨퍼런스'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 및 ㈜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2022 서울릴랙스위크 명상컨퍼런스는 상담심리와 마음챙김을 주제로한 도심 속 치유의 축제이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센터(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코로나 시국을 반영하여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도심 속 사원인 총본산 총지사에서도 가깝다. 컨벤션센터(SETEC)까지 자차로 20분 소요되며, 대중교통으로는 간선버스 461번, 3420번 버스 탑승 후 학여울역에서 하차하면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

축제는 해외 유수한 연사들의 강연 중심의 '명상컨퍼런스', 일상 속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마음공부 '수행주간', 바쁜 도심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쉬는 곳', 크게 세 가지 주제다. 입장권은 1일권, 2일권으로 나뉘어 명상 콘텐츠 제작 및 무상 배포를 위한 후원금 형태로 판매된다.

올 여름,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서울, 경인교구 교도들에게 단순한 위로 그 이상, 속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속 '마음챙김'을 휴가로 권해본다. 문의=02)2231-2011

추억으로 가는 여행 – 전주 흥국사

제26회 무주 반딧불 축제

어느 누구에게나 동심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심은 자연 속에서 빛을 발한다. 도심에서 벗어나 충청, 전라지역으로 내려오면 매년 8월 말, 맑고 밝은 축제가 열린다. 바로 무주 반딧불 축제이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어린 시절 추억과 설렘을 간직한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축제. 무주에서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제26회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무주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되는데, 느지막이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교도가정에게 제격이다.

충청, 전라교구에서 유일하게 전라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흥국사를 기준으로 자차 1시간 20분가량 소요되며, 대중교통으로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인후동 간이정류소에 도착한 후, 무주공용버스터미널 가는 차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단,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 소요 예정으로 자차이동편이 더 수월하다.

반딧불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뗏목체험을 하는 야간낙화 프로그램, 반디별을 보며 별자리 이야기를 듣는 반디별 소풍, 남대천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천연기념물 제259호 치어를 방류하는 프로그램 등온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자연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반딧불축제장소 인근에 무주농특산물장터가 특화되어 있어 먹을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063)324-2440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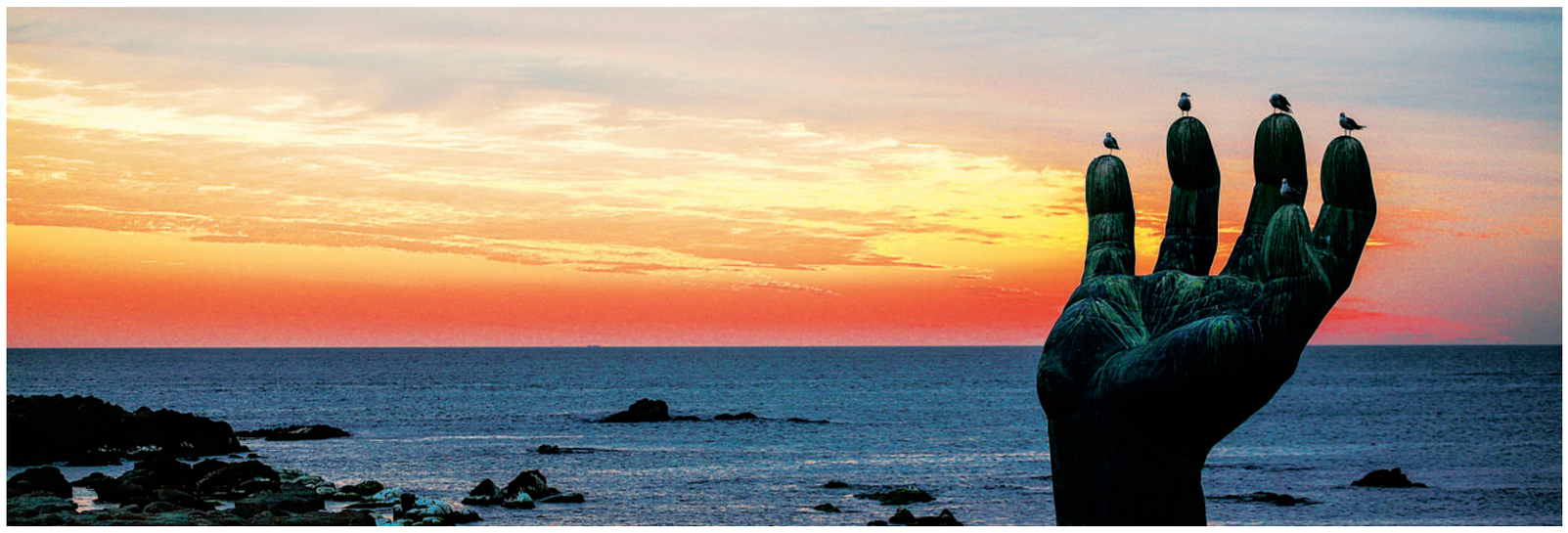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해돋이 보며 큰 서원 - 포항 수인사

호미곶, 영일만 일대 관광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여름이다. 포항 호미곶은 대한민국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꼭 일출, 일몰 때를 맞추지 않더라도 휴가로 포항까지 내려 왔다면 한 번쯤은 들리기 좋은 관광명소이다. 포항 수인사에서도 그리 멀지 않다. 동해안로를 타면 자차로 50분이면 도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9000번 버스나 동해3번 버스를 타면 해맞이광장까지 한 번에 간다.

호미곶은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지만 상생의 손이라는 유명한 조각물도 볼 수 있다. 상생의 손은 해맞이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 오른손은 바다에, 왼손은 육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근처 해상 전망대에 오르면 한국 최초의 국립 등대 박물관등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일몰 때 한없이 멍을 때리며 휴식을 갖기에 좋다.

영일만 일대 주변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 호미곶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까지는 1시간정도 제법 시간이 걸리지만, 수인사에서는 자차와 대중교통으로 15분이면 도착한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포항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동해안에서도 규모가 제법 크다.

해수욕장 반대편으로는 영일대 전망대가 있는데, 특히 영일대 해상누각에 올라 주변 바다 조망하는 것을 추천한다.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과 환호공원 일대를 파노라마 전망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해상누각까지는 보행자 전용 다리 영일교가 연결되어 있어 걷는 재미가 있다.

포항 수인사를 돌아 호미곶과 영일대까지 참배와 관광, 해수욕에 이르는 나들이, 제법 괜찮은 여름휴가가 아닐까.

바다, 웃음바다! - 부산 전역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총지 사원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신심 높은 부산. 이곳에 색다른 축제가 8월에 예고되어 있어 눈여겨볼만하다. 바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다.

(사)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 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은 아시아 최초, 최대의 국제코미디페스티벌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지며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막식 1부는 국내 최정상 코미디언들이 총출동하여 개회식이 열리며 2부부터는 열흘간 알찬 코미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캐나다의 멜버른과 몬트리올, 영국의 에딘버러와 같이 국제적인 코미디페스티벌을 목표로 매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코미디팀 옹알스를 비롯해 투깝쇼, 숏박스 등 국내팀의 공연은 물론, 해외초청작 및 각종 부대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한껏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행사 장소는 부산 전역이나 각 공연마다 상이하며 주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KNN시어터,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예술회관,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bicf.kr 또는 문의 051)916-8828

부산에서의 이색적인 문화축제를 통해 순수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무더위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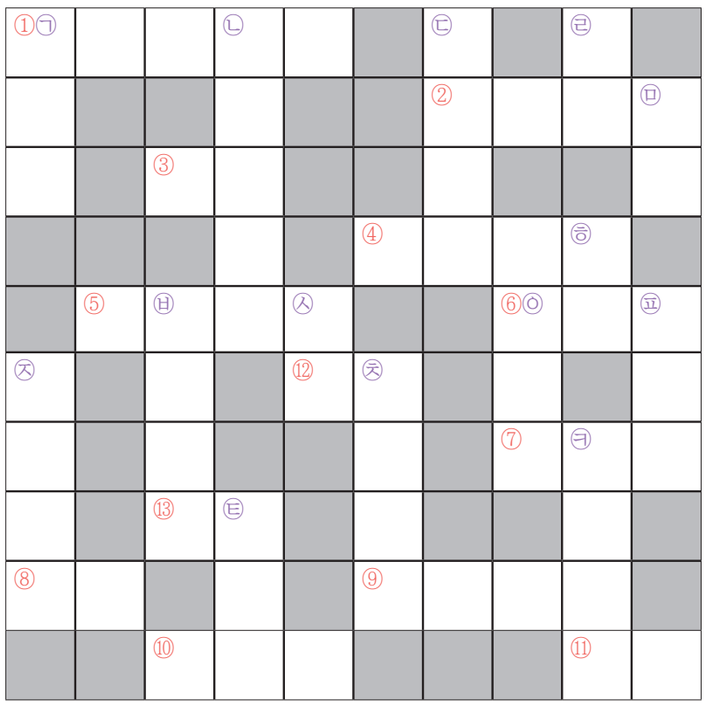
김상미 기자

부산 정각사

전주 흥국사

포항 수인사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①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 서원으로하는 보살의 명호, 관자재보살
② 옴마니반메훔
③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경전을 반포하거나 간행하는 데 보시하는 것
④ 원효의 중심 사상
⑤ 모든 원한을 버리고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보살의 네 가지 마음
⑥ 사찰에서 새벽 예불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식
⑦ 총지종에서 하는 불공법 가운데 하루 '마음 공부'하는 날, 일요일
⑧ 여러가지 물품을 한 곳에 벌여 놓고 보는 것
⑨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
⑩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생활불교 종단
⑪ 하나로 합쳐진 마음
⑫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
⑬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헌정보 전문가

세로 열쇠

㉠ 상대편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근육의 움직임으로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궁예)
㉡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걸음마다 도량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 육바라밀 가운데 네 번째 수행덕목이자 항상 부지런히 도를 닦는 것
㉤ 말과 행동
㉥ 총지종에서 평상시 희사고에 본인이 직접 넣는 희사를 말함
㉦ 남을 골리기 좋아하거나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보(놀부)
㉧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은 비운의 왕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
㉨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전까지 마음을 완전히 뒤집듯이 바꿈
㉩ 물방울이 모여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석가모니부처님이 도를 깨우친 날로 음력 12월 8일
㉫ 간절히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적은 종이
㉬ 석가모니부처님이 탄생한 날로,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명칭이 바뀜
㉭ 건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처마 도리와 중도리를 걸고 마지막으로 마룻대를 올리는 일

정답은 9면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앤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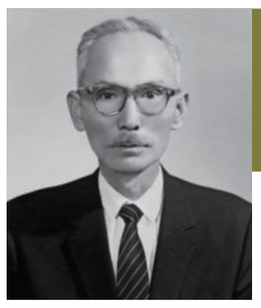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찐보리수 108염주
₩ 40,000

구입문의 | 통리원(02-552-1080) 또는 각 사원

불교총지종 통리원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0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일제의 손발이 되어 동포를 수탈하지 않겠다”

1942년 대성사가 재직 중이던 함양농업실수교 전경. 대성사 촬영

1936년 함양군청 동료들과 함께. 두루마기를 입은 대성사

1937년 지나사변으로 군 교육비 위원회 서기 직 사임
독립군 투쟁의 땅 하얼빈에서 다른 운명의 길 걷기로

일제의 중국침략이 절정에 이르러 1937년 이른바 지나사변, 즉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중일전쟁 이듬해부터 일제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공포하고 한반도의 노동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폐쇄와 노동력 동원, 식량을 비롯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빼앗아 간 것이다.

학교에서는 일제 식민 교육이 강화됐고, 충성 어린 제국신민을 양성하라는 압박이 쉴 틈 없이 내려왔다. 일반 가정의 수저와 밥솥까지 공출이란 이름으로 약탈당했다. 집안의 가양주와 제주 담는 일까지 감시하며 식량을 약탈하는 일에 혈안이 됐다.

일제강점기 말단 행정관서인 군과 면 단위는 공출을 위해 주민을 압박하는 일을 업무로 삼았다. 대성사는 공출을 독려하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교육예산과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심적 부담을 떨칠 수 없었다. 군의 서기로 일하는 한 일제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심사가 있었다.

1940년 1월 14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징발사무세칙을 훈령 1호로 공포하였다. 전시 동원을 위해 사람과 물자의 징용 징발에 관한 사무규정으로, 조선군사령관 또는 사단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징발할 수 있도록 조선 전역의 도지사들에게 자동차와 직공 인부 등의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선의 모든 관공서는 이에 따라 징발 가능한 인원과 물자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학생들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이 훈령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징발된 인력은 보국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려가 전쟁을 위한 강제 노역으로 혹사를 당했다. 홋카이도의 광산부터 군수공장까지 조선의 청장년들은 명분 없는 전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을 지켜보던 대성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대성사는 금강관을 불렀다.

“내 긴히 상의할 일이 있소.”

“어떤 일입니까?”

“더 이상 군 서기 일을 못할 것 같소.”

“특별한 일이 생겼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정세가 심상치 않소. 조선 땅의 물자들을 파악하고 있고, 징발할 수 있는 인력은 학생이라도 모조리 잡아갈 셈이오.”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곧 큰 전쟁을 벌일 것 같소. 교육비 위원회에도 학교 물자나 인원 징발을 준비하라는 언질이 있으니, 곧 일본인을 대신해서 조선 학생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오.”

“그럼 어쩌시겠습니까?”

“군청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소.”

“생각해두신 일이라도 있습니까?”

“당장 일을 그만두면 징용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니, 멀리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소만……”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금강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리 해야겠지요.”

결국 대성사는 일제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2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군 교육비 위원회 서기 직을 사임했다.

세상살이는 쉽지 않을지언정 일제의 전쟁 정책을 이끄는 앞잡이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세상 이치 속에서 익힌 인간다운 삶의 길을 따라서, 일제의 손발이 되어 동포를 수탈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다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신념을 굽히지 않는 대신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뜻으로 내일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며, 하루 하루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성사는 가족을 이끌고 또 다른 운명의 길을 걷기로 했다.

군 서기를 그만두고 대성사가 눈을 돌린 곳은 북만주 하얼빈(哈爾濱). 당시에는 할빈 또는 하르빈, 하루빈 등으로 부르던 곳이다. 이곳 역시 우리 민족과 깊은 인연이 서린 곳이다.

고구려의 옛 영토이며 발해의 땅이었던 곳.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이며, 대흥 안령 일대에서 시베리아의 얼음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독립군들이 투쟁하던 땅이기도 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인들이 도시의 주인이었지만 러시아 혁명과 러일전쟁 이후 판세는 바뀌었다. 서양인들이 몰려와 작은 유럽을 이루어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장과 은행, 회사 등이 줄이어 문을 열면서 북만주의 중심도시로 바뀌었다. 일제가 점령한 곳 중 일본과는 북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땅이었다.

일제는 만주 지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정책을 폈다. 일본인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만주로 갔는데 대략 150만 명 이상이 만주 일대에서 터전을 잡았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일제의 수탈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만주로 건너가고 있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만주 땅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대성사 가족이 서간도로 망명할 때는 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다시 만주로 눈을 돌린 것은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압박이 점차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공출과 인력 징발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만주는 그 압력을 덜 받는 곳이기도 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주는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매력이 있는 땅이었다.

만주국이 세워진 후 1932년부터 일본군이 진주하면서 조선인들의 하얼빈 진출도 잦아졌다. 대성사 가족이 이주한 시기인 1940년 하얼빈의 대략적인 인구는 만주국 수립 후 40만을 돌파한 뒤 6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대도시였다.

그중 조선인들은 10만 명이 넘는 규모로 민족 구성비가 적지 않았다. 그만큼 정착하기에 쉬운 편이고, 업을 도모하기에도 어렵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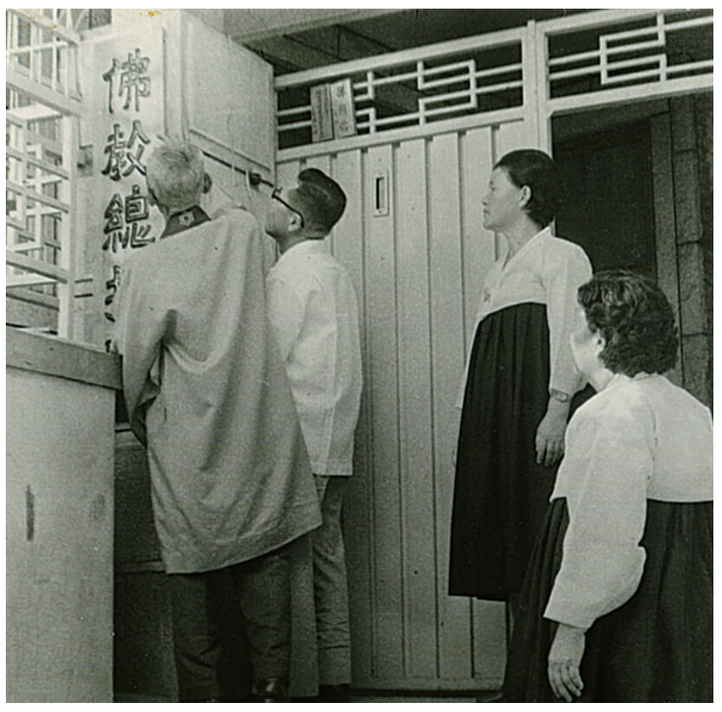
1972년 12월 24일, '불교총지종(佛教總指宗)'을 창종하다

총지종의 역사

02.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창종

정통밀교종단의 탄생①

1972년 12월 24일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의 창종이 선포됐다. 자료사진, 원정 대성사



1973년 5월 1일 서울선교부에서 성북선교부로 설단이설불사를 봉행하고 최초로 불교총지종의 현판을 내걸었다.

법신 대일여래를 교주로, 육자대명왕진언을 본존으로 소의경전『대승장엄보왕경』『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삼밀(三密)과 육행(六行), 수행의 최상승 덕목 제시

한국전쟁의 상흔은 질기도록 오래갔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치는 하루하루는 너나없이 눈물겨웠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으로도 힘겨운 때에 거듭되는 남북한의 긴장과 대치는 불안을 가중시켰고 정치적 혼란까지 이어져 사회는 온통 어지러웠다. 질병고와 민생고에 더해 정신적 방황도 계속됐다.

'불교계 역시 극심한 혼란과 대립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로 촉발된 비구승 계열과 대처승 계열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됐다. 일제 잔재의 청산을 과제로 시작된 정화운동은 법정 소송과 난투극으로까지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 정화의 원칙과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통합과 화합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오랜 분쟁은 1970년 1월 한국불교 태고종의 창종으로 일단락되었다.'

<동아일보, 1963년 8월 12일, 조지훈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

일제 잔재의 청산과 역사적 정통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찰 주도권을 둘러싼 분규와 폭력으로 얼룩진 불교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수행풍토는 무너졌고 불교의 위상과 신뢰는 하락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구하는 이들을 감싸 안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불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이들이 신문물을 매개로 한 서구종교로 떠나거나 갖가지 신흥종교에 현혹되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살아온 불자들은 갈 곳을 잃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바른 불교, 참된 진리였다.

1972년 12월 24일, 원정 대성사를 비롯하여 열화와 같은 신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디어 정통밀교종단의 창종을 선포했다.

전 교도가 상봉동 서울선교부에 모여 총지종 개종불사 및 창종식을 거행했다. 종단명을 '불교총지종(佛教總指宗)'으로 천명한 대성사는 "법신 대일여래를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언을 본존으로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으며 또한 태장계와 금강계 양계의 모든 경궤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여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眞)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였다. 특히 이원진리를 밝혀서 물심병진법(物心倂進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완전한 교상이 확립되었다."고 선언했다.

현교에 대한 밀교의 특색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역사적 인물인 석존의 설법을 현교라 하고 영원한 진리를 불격화한 법신대일여래의 설법을 밀교라 한다.

② 각오(覺悟)한 내용에 대하여 말이나 문자로써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현교요, 상징을 통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밀교며

③ 현교는 장기간(三劫) 수행을 거쳐서 성불이 가능하다고 하나, 밀교는 삼밀(三密)의 유가(瑜伽)에 의하여 현세에서 즉신성불한다고 설하며

④ 밀교는 많은 훌륭한 특색을 가지고 사람마다 불가사의한 현세이익을 주고 현교는 염불왕생이나 수행각오를 주로 설한다.

현교는 심본색말(心本色末)을 주장하나 미래중심의 유심적인 불교이므로 결국은 사후 불교가 되며 밀교는 색심불이(色心不二)를 주장하니 현세 중심의 현실적 실천불교가 된다.

<『종조법설집』 중 '현밀이교의 비교'>

특히 총지종의 공공서원으로서 '총지종 교세 발전', '일체교도가정 소구여의', '일체교도가정 제재난'과 함께, 밀교 특유의 진호국가법으로 북한의 재남침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공공서원으로 선포했다. 공공서원의 기본 틀은 오늘날까지도 유지 계승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밀교가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 등 논리 정연한 삼밀의궤의 교리와 사상을 갖추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각종에서 20여 년 동안 교화의 중심에서 활약한 원정 대성사는 창종 전 이미 수행법과 교전은 물론, 종단의 제도와 행정체제의 구상을 마쳤다. 그런 만큼 창종 이후 제반 제도와 직제를 구비하는 시간은 크게 단축되었다.

1973년 6월 27일 당시 총지종의 총본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3번지 성북선교부에서 전국의 교역자와 교무가 모인 가운데 전국 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의장 록정 정사의 사회로 종헌을 심의 가결하고 만장일치로 원정 대성사를 종령으로 추대했다. 자문위원 6인, 종의회 의원 15인을 구성하고 초대 통리원장 현수 정사를 비롯해 총무부장, 교정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등 6인의 원의회 의원을 구성했다. 곧바로 역사적인 제1회 강공회와 종의회, 원의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직제와 행정 및 심의 기구를 확정했다. 종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와 행정기구인 통리원 및 원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뒷받침할 종단의 행정과 심의체계를 완벽하게 갖췄다.

총지사 교도 광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밀교연재

초기밀교의 전개와 형성③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제2기 시대에는 근본주·심주·수심주와 같은 다라니의 삼종 형태, 삼존형식의 화상과 만다라, 화상의 다면다비화(多面多臂化) 및 소박한 관정의례, 조직적인 공양법의궤, 식재·증익·항복의 삼종호마법(三種護摩法), 보살행 사상에 근거한 힌두교 주법(呪法)의 승화 등이 밀교사상의 세계를 수놓았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계(印契)와 진언(眞言, 印明)의 결송(結誦)이 등장한 점이다. 이로써 제존을 화상과 만다라에 소환하여 각인하는 소청(召請)의궤가 이루어지게 된다. 화상과 만다라 등 회화적 공간은 존이 거주하는 장이 되며, 이 인명(印明)의 결송작법이 후에 제3기에 있어서 밀교 의궤의 모델이 된다.

한편 사상적으로 중요한 점에서는 제1기 중반 무렵부터 나타난 힌두교적 주법이 대승사상에 의해 사상적으로 승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대승보살사상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주법을 대승보살의 수도론(修道論)으로 끌어들인 점이다. 이로써 1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힌두교적 주법조차 보살의 자리이타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실천과 사상의 양면이야말로 초기 밀교의 전개에 있어서 제2기의 초기 밀교의 전개를 평가할 수 있고 『모리만다라주경(牟梨曼陀羅呪經)』이 초기 밀교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제2기 밀교'는 인계를 이용해 새로운 의궤를 조직하고 기존의 주법을 대승보살사상에 의거해 전개시킨 밀교로 표현할 수 있다.

제3기 시대 초기 밀교의 확립

3기 새롭게 나온 초기 밀교 경전(6세기 후반~7세기 전반)

(1) 흐리다야계(hṛdaya系)

① 『제불심다라니경(諸佛心陀羅尼經)』

② 『지세다라니경(持世陀羅尼經)』

③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④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2) 신호주계(新護呪系)

⑤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신주경(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⑥ 『대방광보살장경중문수사리근본일자다라니경(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

(3)관음계(觀音系)

⑦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

⑧ 『관자재보살수심주경(觀自在菩薩隨心呪經)』

⑨ 『관세음보살비밀장여의륜다라니신주경(觀世音菩薩秘密藏如意輪陀羅尼神呪經)』

⑩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羂索紳變眞言經)』

(4)불정계(佛頂系)

⑪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

⑫ 『오불정삼매다라니경(五佛頂三昧陀羅尼經)』

(5) 금계계(禁戒系)

⑬ 『소바호동자청문경(蘇婆呼童子請問經)』

⑭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囉經)』

(6)관정계(灌頂系)

⑮ 『유희야경(薩哩耶經)』

티벳역 『성금강수관정대(聖金剛手灌頂大)딴뜨라』

위에서 열거한 <신출경전>에 대해 각 경전에서 설파하는 것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그 내실은 실로 다종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략적인 테마는 위와 같이 (1) 흐리다야계·(2)신호주계·(3)관음계·(4)불정계·(5)금계계·(6)관정계의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제1기부터 계속해 전개해 온 〈다라니〉와 〈호주〉 양 계통의 여러 경전을 더하면, 제3기의 초기 밀교는 종래의 다라니나 주문을 중심으로 한 밀교 형태를 답습하면서도, 한층 더 3부로 구성된 화상이나 만다라를 본존으로 하여 수호(守護)·실지(悉地)·속질성불(速疾成佛)을 목적으로 다양히 전개된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흐리다야계는 ①에서 볼 수 있듯이 밀교계 다라니에서 특화된 것으로 불보살의 심수(心髓)를 의미하는 흐리다야(hṛdaya, 心呪)를 설하는 경전군이다. 이 흐리다야에 관해 흥미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②나 ③과 같이 유본(類本) 전개의 과정에서 흐리다야가 존격화(尊格化)되어 간다는 점이다. 둘째, ④에서 흐리다야가 불탑 안에 안치되어 법신사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모두 흐리다야가 형태를 취해 구상화된다. 셋째, ②~④의 세 경전과 같이 기존 염송법 가운데 만다라 작단(作壇)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흐리다야에서 존격화된 새로운 불보살이 만다라라는 세계관으로 위치가 부여되고, 염송법의 본존으로 만다라의 주존을 구성하는 동향을 볼 수 있다.

(2) 신호주계에서는 『공작경(孔雀經)』을 비롯한 〈밀교계 호주경전〉의 정착과 함께 ⑤와 ⑥이 새롭게 등장했다. 두 경은 모두 '주선(呪線)'에 의한 수호를 목적으로 한 경전이다. 특히 ⑤의 유본은 나중에 『공작경』과 같은 판차락샤(Pañcarakṣā) 문헌으로 집성되어 가는데, 이를 통해 호주계 경전이 새로운 체제의 모습으로 제작되었음을 양경의 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⑤에는 팔엽연화상에 삼차극(三叉戟)·금강저(金剛杵)·부(斧)·도(刀)·라(螺)·검(劍)·견삭(羂索)·화염주(火焰珠)라는 제존을 상징하는 '삼마야형'을 배치한 만다라도 등장하고, 이 다라니도 존격화되어 수구보살(隨求菩薩)들에게 전개된다.

(3) 관음계는 관음을 본존으로 한 것이다. 유본의 수를 포함해 수량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이 관음계 경전이다. 제1기의 『청관음다라니경(請觀音陀羅尼經)』이라는 밀교계의 관음경전이 제작되면서부터, 『십일면관세음신주경(十一面觀世音神呪經)』이나 『불공견삭주경(不空羂索呪經)』을 거쳐 제3기의 신출경전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시대에 천수관음·여의륜관음이라는 새로운 변화관음이 등장하여 관음 그 자체가 다양해진다. 이와 동시에 관음계 경전의 밀교 형태도 두드러지게 전개된다.

가령 ⑨를 예로 들면 소본계(小本系)의 유본 중 가장 단편의 의정(義淨) 역에서는 당초 흐리다야를 외는 염송법을 설할 뿐이던 것이 다음 보사유(寶思惟) 역에는 웅황법(雄黃法)을 비롯한 각종 성취법이 증광된다. 그리고 유본 최후의 대본계(大本系)인 보리유지(菩提流支) 역이 되면, 흐리다야에서 존격화된 여의륜관음을 중존(中尊)으로 한 이중만다라가 만들어지고, 더불어 삼십인명(三十印明)을 조직한 공양법 의궤가 등장한다. 또 만다라에는 관음 그룹 여존들이 나와 함께 정형화된다.

이렇게 단순한 흐리다야를 주창하는 염송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변화관음을 만다라의 중존으로 한 공양법의궤가 조직되기도 하고, 존격도 관음만이 아니라 그룹화된 제존들을 배치하는 전개가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전개는 신출경전이나 ⑦과 ⑧도 공통되므로 『십일면관세음신주경(十一面觀世音神呪經)』이나 『불공견삭주경(不空羂索呪經)』 이래 전개되어 온 관음계 경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었다.

특히 ⑩은 관음계 경전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경전으로 제2기 『불공견삭주경(不空羂索呪經)』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총 주문 514수와 60종이 넘는 성취법과 염송법이 잡집(雜集)적으로 담겨 있다. 주문과 관련해서는 흐리다야계, 만트라계, 비드야(vidyā)계, 다라니계의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제3기에 다라니와 주문 자체가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궤에 관해서는 60종이 넘는 성취법이나 염송법 중 '세간성취법'과 '출세간의궤'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세간성취법에서는 아란야·승원·경행처 등 비구의 수행 장소에 십일면삼십이비(十一面三十二臂)의 불공견삭서상(不空羂索畵像)을 세우고,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우면서 희망하는 일의 11종의 주적성취법(呪的成就法)을 행하면, 힌두교 신의 모습을 취한 불공견삭존이 나타나 소원을 성취시킨다는 구성을 취한다.

또한 출세간의궤에서는 화상이 불공견삭존의 본거지인 보타락산을 표현하면서 만다라가 불공견삭존의 화현(化現)장소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관정의례를 통해 밀교자 및 입단(入壇)의 수자(受者)들이 과거의 죄장을 정제(淨除)하고 극락왕생이나 무상보리를 기한다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여하튼 ⑩에 있어서는, 『모리만다라주경(牟梨曼陀羅呪經)』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명(印明)의 결송(結誦)에 따른 염송법의궤나 별행(別行)의 각종 성취법이 다양화되는 한편, 관음의 부족화가 두드러진다.

화음사 교도 광고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근대 티벳불교의 스승 파봉카 린뽀체 (1)

필자는 6월 25일 20일간 일정으로 인도에 머물렀다. 7월 8일부터 10일 동안 인도 다람살라에서는 달라이라마 14세가 관정 아사리로써 내리는 챠끄라상와라딴뜨라 관정식이 열려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다. '상와라'라고 하는 것은 '승락(勝樂)', 즉 '궁극의 행복' 즈음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열반경』의 '상락(常樂)'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챠끄라상와라딴뜨라 관정은 간타빠와 루이빠양 전승을 위주로 겔룩빠에 전승되었는데, 이번 챠끄라상와라딴뜨라 관정은 루이빠의 전통으로 티벳본토에서 주로 라모체사원에서 일주일간 개최되던 것이었다. 근대 달라이라마 13세는 밀교관정의 대중공개를 선언하였고, 이후 달라이라마 14세는 그 뜻을 따라 중요한 밀교관정을 대중화하고 간소화하였다.

지난글에 등장했던 링린뽀체는 '비밀집회딴뜨라', '야만따까딴뜨라, '챠끄라상와라딴뜨라' 세 가지 딴뜨라의 관정과 수행을 중요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달라이라마 14세 존자는 '비밀집회딴뜨라'에 의해 법신·보신·화신을 구족하고, '야만따까딴뜨라'에 의해 공성으로 죽음의 문턱인 사마(死魔)를 정복하고, '챠끄라상와라딴뜨라'에 의해 번뇌장을 물리치고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의 승락을 성취한다고 하였다. 즉 삼신의 성취와, 소지장과 번뇌장을 물리치는 간결한 수행시

Pabongkha

스템이 세 딴뜨라에 요약되어 있다. 전통적인 티벳불교 겔룩빠의 교과과정을 현대적으로 확립한 것은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누구보다 제 2대 파봉카린뽀체 데첸닝뽀(이하 파봉카린뽀체)를 빼놓을 수 없다.

파봉카린뽀체는 전생 링린뽀체의 스승이며 달라이라마 13세를 실질적으로 가르쳤던 분이다. 현교와 밀교, 산스끄리뜨어 문법, 전통 문학까지 모든 부문에 통달했던 분이고 생전에 지금강(持金剛)을 비롯해 수많은 칭송과 명호로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특히, 근대 밀교아사리로서는 가장 많은 전승을 보존하고 성취하였으며 조용하고 행정에 나서진 않았지만 근대 밀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을 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파봉카린뽀체를 서슴없이 들고 싶다.

제2대 파봉카 데첸닝뽀는 1878년 라사외곽 유톡다리 가까운 곳 유톡샤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창출신의 평범한 관료였는데, 2살 때 어머니는 당시 간덴의 좌주였던 아왕놀부를 알현하여 아왕람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다시 6살 때 샬빠최제(샬빠의 법주)에게 보였을 때 샬빠최제는 그가 큰 법기임을 알아보고 같은 해 승려로 만들어 세마메 사원에 입학토록 하였다. 처음에는 특별히 주목받지 않고, 7살 때 사미계를 받고 이름을 잠빠뗀진이라 하였다. 다른 사미들과 어울려 평범하게 지냈지만, 2년 후 아이를 비범하게 여긴 어머니의 노력으로 유명한 제3대 챵꺄 가계의 활불로 여겨졌으나 당시 청조의 정치적 구속을 피하여 파봉카수도원의 주지였던 초대 파봉카의 화신으로 몸을 숨겨 후대에는 '파봉카린뽀체'라고 불리게 되었다.

제2대 파봉카린뽀체의 수학과정은 세라메사원의 계롱승원대학에서 쫑카빠의 보리도차제와 중관학을 배웠고, 18세때 링쎄학위를 받고 규뙤사원에서는 3년간 밀교를 수학하였다. 19세에 비로소 구족계를 받았는데 구족계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수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티벳승려와 같이 파봉카린뽀체도 여러 스승을 두고 혹독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스승으로는 닥티돌제창, 롭상툽뗀남곌이며 현교와 밀교의 중요한 과목들을 연구하였다. 이외 파봉카를 가르쳤던 많은 인물들이 그의 전기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파봉카린뽀체는 이미 모든 부문에서 탁월하였지만, 여전히 밀교의 전승을 중요시하여 수많은 밀교관정을 받았으며, 아사리이자 동시에 겸허하게 관정을 요청하고 배우는데 젊은 시절을 보냈다. 파봉카린뽀체는 특히 위에서 말한 챠끄라상와라딴뜨라 밀교본존을 중시하고 깊은 수도원에서 수행했으며, 이후 많은 이들에게 챠끄라상와라딴뜨라 관정을 수여하게 된다.

관	세	음	보	살		골		정	
심			보			육	자	진	언
법		법	시			상			행
			도		화	쟁	사	상	
	사	무	량	심			도	량	석
심		상		술	수		세		탄
기		희			적		자	성	일
일		사	서		석			도	
전			원		천	도	대	재	
		총	지	종				일	심

역삼한담

선비 정신을 갖자

요즘 '선비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선비 정신'을 이야기하면 세계화 물결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꼰대의 전유물로 회자되는 경향 또한 매우 강하다.

아울러 "선비는 보수적이고 나약하며 공리공론적이다."라고 착각하고 매도하는 추세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선비가 아니다.

'선비'라는 단어를 좀 더 고찰해 보면 '선비'의 사전적 의미는 학식은 있되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학문을 닦은 사람, 어질고 순한 사람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학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이 '선비 정신'이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비는 대중적으로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꿋꿋한 기개(氣槪)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支柱) 역할을 하였으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선비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피해와 위험이 항상 뒤따랐던 민중의 지도자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정한 선비를 가까이했던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신하들을 가까이 한 왕은 대부분이 혼란 속에서 나라가 어지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통치를 했었다.

그래서 뜻있는 우리 옛 조상들은 '선비 정신'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 교육에 최고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당교육론>이 다시 부각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선비 정신'은 인의(仁義)와 지성(智性)과 자존심(自尊心)이 잘 어우러진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핵심이자 요체(要諦)이다. 선비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며,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화랑도와 같은 전인적인 인격자임과 동시에 탐심에 야합하지 않고 오직 화(和)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이다.

선비는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성적인 인격자이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수양에 힘쓰는 수신(修身)의 사람이며 인(仁)과 예(禮)를 알고 스스로 실천하는 보통사람이다.

이토록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비 정신' 문화가 어쩌다 세계화 바람에 휩쓸려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현실이 되었는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과거 '선비 정신'이 살아있던 시대에는 비인간화니 인간성 회복이니 하는 말조차도 거론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계층에서는 윤리도덕이 실추되고 수치심은 결여(缺如)되었으며, 양심의 부재 현상까지도 나타나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야합(野合),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이렇듯 실로 비인간화를 우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선비 정신' 문화를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을 제1의 덕목으로 강조한 지가 이미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는 인성교육의 부진과 사회의 비인간화를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국인의 긍지요 자존심인 '선비 정신'을 회복시켜 인간화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승화시키고 계승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선비 정신'을 스승의 요건으로 삼고 정신교육의 지표(指標)로 삼아야 한다.

스승 상의 재정립과 '선비 정신'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육도 살리고 우리가 세계 속의 일등 국민으로 가는 새천년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6/20	10,000
	보명심	7/14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6/20	20,000
	상지화	6/20	10,000
	수증원	6/20	10,000
	밀공정	6/20	10,000
	총지화	6/20	10,000
	법수원	6/20	10,000
	선도원	6/20	10,000
	법지원	6/20	10,000
	일성혜	6/20	10,000
	사홍화	6/20	10,000
	안주화	6/20	10,000
	진일심	6/20	10,000
	시각화	6/20	10,000
	최상관	6/20	10,000
	연등원	6/20	10,000
	자선화	6/20	10,000
	승효제	6/20	10,000
	해정	7/15	10,000
단음사	신말심	7/18	50,000
	황현정	7/18	10,000
단음사	장정숙	7/18	20,000
덕화사	이진승	6/30	10,000
	법상인	7/14	20,000
동해사	송인근	6/20	10,000
	법선	6/20	10,000
	김진화	7/5	10,000
	송인근	7/18	10,000
밀인사	정정희	6/29	5,000
법천사	반야심	6/30	10,000
법황사	박미경	6/27	10,000
	인선	7/14	10,000
	정계월	7/14	10,000
벽룡사	승원	6/20	10,000
	묘원화	6/20	10,000
볏고을	이민선	7/1	5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6/27	10,000
	무명씨	7/1	10,000
	남영애	7/1	30,000
	최영미	7/11	50,000
	김지은	7/11	20,000
	박필남	7/18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용기	6/27	20,000
	나석원	6/27	50,000
	오선혜	7/1	10,000
수인사	법상	7/14	20,000
	무명씨	7/18	50,000
시법사	혜광	7/19	10,000
	이순영	7/19	20,000
실보사	무명씨	6/28	20,000
	이순옥	7/1	10,000
	박성호	7/1	10,000
	이순옥	7/20	10,000
	박성호	7/20	10,000
실지사	관득	6/22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6/24	50,000
운천사	반야화	6/22	3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6/27	50,000
	정동숙	6/27	50,000
	구미자	6/30	10,000
	연명구	6/30	10,000
자석사	도우	7/17	10,000
자석사	지현	7/17	10,000
정각사	노점호	6/21	10,000
	김점남	6/30	20,000
	안한수	7/10	10,000
	탁상달	7/11	10,000
지인사	유승태	7/13	10,000
	김미혜	7/13	10,000
초록 어린이집	강혜란	6/27	10,000
총지사	김정환	7/3	10,000
	신성희	7/7	10,000
	신현태	7/7	10,000
	록경	7/8	20,000
	백귀임	7/11	10,000
	최영아	7/11	10,000
	홍수민	7/18	10,000
통리원	박근진	7/3	10,000
화음사	무명씨	7/4	10,000
	강승민	7/11	5,000
	박옥자	7/13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7/11	5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⑫

보현행원에 담긴 생명이야기 ②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을 보현행원의 힘으로 깊이 믿고 이해하여 눈앞에 계시듯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 상속하여 끊임없이 예경하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열 가지 보현보살의 행원 첫 번째 예경제불원(禮敬諸佛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2600년 전 태어나신 석가모니부처님이 계신다. 그리고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세에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약사여래 아촉불, 아미타불, 보생여래, 불공성취불이 있고 중앙에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시고 또 동서남북 사이에도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데 보현행원에서는 특정한 곳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한다. 어떻게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많은 부처님을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일까?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아주 작은 티끌 수 만큼 많은 중생이라 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몸이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나 지구표면상의 물질의 중요요소가 모두 같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몸은 지구에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를 대지의 어머니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진실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무너지는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여섯 번째 대멸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전세계가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답은 나와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생태위기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량생산 대량폐기라고 하는 자본주의 산업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이다. 하지만 지금도 멈출 줄 모르고 성장이라는 정언명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자연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피괴하고 수탈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경쟁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 경쟁을 그만두면 마치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잘못된 경제시스템과 세계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세계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치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정책을 펼치고 끊임없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성장과 개발 앞에서 무비판적으로 동조한다. 녹색당과 같은 생태주의에 기반한 정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정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10개의 신공항을 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도 10개의 공항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텅 비어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이 계획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없이 이어졌고 오히려 이번 정부에 와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공항예정지역의 여론은 대체로 찬성이다. 10개의 신공항에 포함되어있는 제주제2공항은 반대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가예산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거대 양당의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열 개의 신공항에는 새만금과 가덕도가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개발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엄청난 규모의 갯벌을 파괴하고도 전북의 희망이라던 새만금 개발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전북의 정치인들은 복원보다는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20여 년 전 수경 스님을 비롯하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전북 부안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오체투지 절을 하며 생명을 살리고자 했지만 새만금 개발은 막지 못했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갯벌과 오염된 새만금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곳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수라갯벌이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바로 이 수라갯벌마저 사라지게 할 판이다. 부산의 가덕도는 기존 부지타당성조사에서 꼴지를 했던 곳인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부산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임을 알기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참히 죽어갈 생명들 아니 부처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현행원의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에서는 원을 행함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지키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현보살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조금 노력하고 상대가 바뀌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치고 싫어하고 그만두고 만다. 티끌수 만큼 많은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기를 끊임없이 하는 상수불학원(常隨佛學願)이 첫 번째 원(願)인 까닭도 이해가 된다.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계속 하고 싶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할 일은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을 찾아보는 일이다.

BOOK소리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저자 관정 스님
판형 158*232mm 양장판 220쪽
출판사 알아차림
가격 16,000원

반야심경은 팔만대장경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경이다. 하지만 그 뜻을 알려고 하면 매우 어렵다.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는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으로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반야심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또 반야가 어떤 것인지,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저자는 "반야심경은 공리공론이나 주문을 말하기 위한 경이 아니라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을 말해주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이라며, "경의 제목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제대로 번역하면,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원래 반야심경은 반야, 즉 깊은 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사리자가 관자재보살에게 묻고, 관자재보살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경이며, 현장법사가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전체 내용의 약 60%를 잘라내 버리고, 번역해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저자는 잘려진 부분들을 모두 찾아 복원함으로써 또 반야심경 구절들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해 반야심경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되살려 놓았다.

관정스님은 1959년 경남 함안서 태어나 2019년 2월 통도사 반야암 지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현재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암자에서 집필에 매진 중이다. 출가 전 해운대고등학교 교사로 10년간 재직했으며, 〈마하시 사야도의 위빠사나 명상법〉, 〈대승기신론 속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걷기명상〉 등 다수를 저술하고 번역했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7/1~31)

제공 : 도서총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정토출판	법륜 스님
2	스님 고민이 있어요	마음의숲	등명
3	도법 스님의 신심명 강의	불광출판사	도법
4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말씀(1)	오색필통	이철현 엮음
5	요가수행 디피카	선요가	아헹가,존J.에반스 더글라스 에이브람스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Bene人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 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 처럼 부모 사랑 을 뜻 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Ch 배내인 카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 ,유통상담환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종단이 지원한 피란민 올가 신 씨 가족 이달 우크라이나 행

Dear donators,

This letter is from me, Olha Sin, Ukrainian Korean, to thank you for the help for my family.

I am grateful that people in Korea know about what is happening in Ukraine and consider it necessary to help Ukrainian people. I am proud that I am Korean, I am glad that my children saw the responsiveness of Koreans.

When I came to Korea after fleeing the war with three children, I did not expect to receive such powerful support from the Korean society. I am glad that my children were able to see their historical homeland even in such a difficult time. I don't have enough words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Buddhist community for crowdfunding and providing the apartment. I really hope that the war in Ukraine will end soon, and we will come back to the motherland. I wish everyone who helped us longevity and good health. I also wish peace to Korean people.

With kind regards,
Olha Sin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란민이 되어 한국에 와 종단이 제공한 거처에서 4월 25일부터 생활해 온 고려인 올가 신 가족이 이달 본국으로 돌아간다. 귀국에 앞서 신 씨는 ‘도움주신 분들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종단에 보내왔다. 편지에서 신 씨는 그동안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도움주신 분들께

우크라이나 고려인 올가 신입니다. 저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아시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고 제 아이들이 한국인들의 응답을 보게 된 것이 기쁩니다.

제가 세 아이들과 전쟁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저는 한국 사회로부터 이렇듯 강력한 지원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 아이들이 역사적 조국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불교 공동체(불교총지종)가 인터넷 모금을 하고 머물 곳을 제공한 데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한국 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부인사 드리며 Olha Sin 올림

실지사 신정회 새 임원진 구성

서울 실지사(주교: 서강 정사) 신정회의 새 임원진이 구성됐다. 왼쪽부터 연화심(황순란) 부회장, 법정화(박혜선) 회장, 서강 정사, 보리화(박순임) 총무, 월명심(이옥분) 총무, 황성녀 감사. 이밖에도 부회장에 여심지(홍정숙), 감사에 연화법(서이정) 교도가 선임됐다.

마니합창단, 코로나 딛고 다시 합창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장단(단장: 최해선)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합창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달 초 재개된 합창단은 12일 시법사 윤환석 각자 49재 추선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본산 연습실에서 불음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귀선 교도, 지역 교통문화정착 공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장 수여

진주 화음사 이귀선 교도(61세)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으로부터 상장을 받았다. 지난 4월 경상남도에서 받은 표창장에 이어 벌써 2번째 수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지난 달 27일, 새마을교통봉사대 경상남도 지역대에서 봉사 및 홍보활동으로 교통문화정착에 이바지한 이귀선 교도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상장을 수여했다.

이 교도는 수상소감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에 이어 “다함께 힘을 합쳐 하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도는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 농촌일손 돕기, 문화마을 조성,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에도 매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상미 기자

성화사 박서현 양, 최우수상 수상

뉴욕대 치과대 졸업식에서 교정부문

부산 성화사 이종임 교도의 손녀 박서현 양(26세)이 지난 5월 18일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열린 미국 최고의 명문 치과대학 뉴욕대 제188회 졸업식에서 교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故 정축생 석희경 님
(7월 14일 입적, 금강륜 전수 시부친)

故 경오생 송준호 님
(5일, 11시 49재 부산 법성사, 동해중 송인근 교장 부친)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

수험생 불자들을 위한 발 원 문

2022년 11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교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수험생불자들을 위해
불공에 동참하여 힘찬 격려를 보냅시다.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삶의 바른길을 광명으로 밝혀 주시는 부처님!

이제부터 수험생 불자들이 신명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자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너그러운 겸손과 끊임없는 정진의 힘을 갖게 하소서

잠시라도 무기력한 마음과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어할 때는

부처님의 광대하신 원력과 샘솟는 지혜를 본받아 지니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는

부처님의 인욕의 마음과 깊은 선정의 힘으로 이겨 내게 하소서

잠깐이라도 좌절과 실의에 빠져 힘겨워할 때는

부처님의 금강석과도 같은 용기와 불퇴전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수험생 불자들이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원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갖게 하여 그간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를 서원합니다.

시험 당일 마지막 시간까지 스승님과 여러 교도들의 동참 원력이 함께하기에

시험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안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불교총지종